

# ESG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례 연구

고광훈  
LG전자 책임연구원

## Study of eco-friendly management cases for ESG in companies

Kwanghoon Ko  
Chief Researcher, LG Electronics

**ABSTRACT:** Recently, the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has appear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section of the media and company-related articles, and then ESG is recognized as essential, not optional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Firstly, the international regime and eco-friendly policies of many countries, such as Paris Climate Change Accord and Korea green new deal and etc. are being strengthened. Also, this eco-friendly activities of companies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investment to investors. This case study is useful for establishing a eco-friendly management strategy to many companies, such as using renewable energy, enhancing recyclability of disposal products and carbon footprint assessment for life cycle of products. Therefore, for the company's ESG, it is important that eco-friendly activities should be sustainable.

**Key words:** ESG,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Sustainability, Carbon footprint

**요약문:**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미디어와 기업에 관한 경영관리 기사에서 볼 수 있고,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파리기후변화 협약, 한국 그린뉴딜 등 국제 친환경 정책이나 협약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이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폐자원의 재활용성 향상,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 평가 등 기업의 친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업의 ESG에 대한 친환경 활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ESG,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속가능성, 탄소발자국

### 1. 서론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란 용어가 언론의 경제경영 섹션이나 기업 경영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최신 경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ESG의 개념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친환경, 사회적 가치, 투명경영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시총 상위기업들을 평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ESG 관련한 경영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ESG 경영은 이제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기업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황을 기업 경영 전략의 변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G의 개념과 중요성, 해외 및 국내 기업의 친환경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나아가 할 친환경 경영 전략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ESG의 개념 및 의미

우선, ESG란 기업활동에 있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

영,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중 친환경은 소비자에게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 소비 전력 등급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래에는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존에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었으나, ESG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가 기업이 경제적인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에선 유사하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이라는 의미에서 그 개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Fig. 1은 서진석의 “ESG는 CSR과 다르다”라는 블로그 내용에서 CSR과 ESG 개념<sup>1)</sup>을 인용하여 요약한 것으로, CSR은 기업이 돈을 번 만큼 사회에도 환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사항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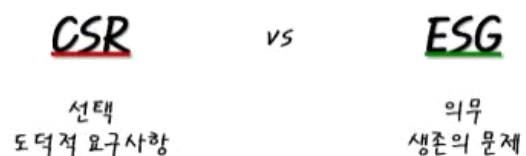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comparison diagram of CSR and ESG.

ESG는 더 이상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SR은 기업이 사회공헌 수행 여부를 임의로 정하고,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나, ESG는 기업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 평가기관들의 객관적인 수치화된 평가 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3. ESG 국제 동향 및 자본 시장 환경 분석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국제 협약이나 여러 국가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Table 1은 주요 국제 환경 협약과 정책을 나타낸 것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각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 5년 주기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그린 경제로의 전환 및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저탄소발전전략을 언론<sup>2)</sup>을 통해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의 기후변화 활동에 소극적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게 되었고,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자본 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주주와 같은 투자자들도 ESG를 중요한 투자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경영층에게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기업의

ESG 성과가 저조하면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과 경영층 교체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Table 2는 2020년 글로벌 투자회사인 블랙록에서 27개국 425명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에 대한 인식을 조사’ 결과<sup>2)</sup>로 기업의 중요한 ESG 활동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 창출 및 자산 확대이기도 하나,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도 매우 중요한 투자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새로운 친환경 ESG 활동으로 금융권에서 그린 채권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다.

### 4.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례 분석

Table 3은 ESG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활동 사례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제품 생산 시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 산정 및 저감, 환경과 인권 신장 등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 4.1 신재생 에너지 사용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인 애플은 2030년까지 RE(Renewable Energy) 100, 즉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선언<sup>4)</sup>하였고, supply chain 전반으로 RE100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글도 2020년 7월 탄소제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sup>5)</sup>하였고, 2030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투자와 5GW 규모의 태양열,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저탄소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LG화학의 경우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sup>6)</sup>하고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Table 1. Global eco-friendly policy trends

구분	발표일	주요 내용
파리기후변화 협약	2015년 12월	- 195개 당사국 채택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C 이하로 제한
한국 그린 뉴딜 정책	2020년 7월	-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미국,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선언	2020년 11월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청정에너지 100%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

Table 2. Global Investors' ESG Perception Survey Results

응답자 의견 요약	상세 내용
지속가능성 투자	지속가능성 투자 프로세스 및 수익 창출에서 핵심적임 (54%)
지속 가능한 자산 비율 확대	지속가능성 자산의 규모 2배로 확대 (평균 18% → ~25년 37%)
양질의 ESG 데이터 부족	ESG 데이터 분석의 질 및 가용성 부족 (53%)
기후변화가 최우선 순위	기후변화의 긴급성 고려, 환경이 가장 중요함 (88%)
ESG 통합 포트폴리오	투자 판단의 기준에 ESG 기준을 통합 (75%)
채권 및 대체투자의 성장	주식 외에 채권 등 기타 투자 상품에서도 ESG 고려 (그린 채권)

**Table 3.** Examples of eco-friendly management activities from an ESG perspective of global companies

기업	주요 활동
애플	- 2030년까지 RE(Renewable Energy) 100 달성 선언 - supply chain 전반으로 확대, 거래 요구사항으로 준수 요구 - 재활용 알루미늄 100% 사용 목표 달성
구글	- 2020년 7월 탄소제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 - 50억 달러 이상 투자, 5GW 규모의 태양열, 풍력발전 확보
LG화학	-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추진
BASF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 - 2021년 말까지 전체 제품군에 대한 제품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Kering group	- 가죽 제품의 환경발자국 산정 - 2025년까지 2010년 대비 환경손실 40% 감축목표 선언
Daimler	- 2022년 자동차 생산 공장의 차량 생산단계에서 탄소중립을 선언 - 2039년까지 모든 Supply Chain의 이르는 자동차 부품의 탄소중립 달성
네슬레	- '네스카페 플랜'으로 현대식 장비를 지원, 수익성이 높은 커피 식물 공급 - 인공위성, 블록체인 기술로 팜유 농장 벌목 및 질소비료 과다 사용 예방

## 4.2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및 저감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 중 하나인 BASF는 '탄소중립성장'을 발표<sup>7)</sup>하였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 성장을 같이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페어분트'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 공장의 폐열이나 원료 찌꺼기 등의 부산물을 다른 공장의 에너지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개조하였고, 연료 재사용률을 무려 90%까지 달성하였다. 또한, 업계 최초로 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의 원료 구매부터 공장 출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독일의 Daimler의 경우, 2022년 자동차 생산 공장의 차량 생산단계에서 탄소중립을 선언<sup>8)</sup>하고, 모든 자동차 부품의 거래 업체에 2039년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어,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명품 의류 업체인 이탈리아의 Kering group도 환경발자국 산정 프로그램<sup>9)</sup>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환경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죽 제품에 대한 탄소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4.3 환경과 인권

세계적인 식품기업 중 하나인 네슬레는 8,000여 개의 식음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다양한 커피 음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 세계 커피 농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네스카페 플랜'이라고 불리는 커피 농가 지원 프로그램<sup>10)</sup>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질소비료 사용 절감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벌목 활동을 금지하여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농가의 생산량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ESG 개념을 이해하고, 경영 활동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토대로 생존 경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국내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 및 에너지 재활용 확대뿐 아니라,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탄소발자국 산정 제도 도입과 목표, 성과 관리 등을 실행하고 있었다. 향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 중, 친환경 활동이 경영 전략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중요성이 변동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내재화 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https://blog.naver.com/campsis/222219771857>.
- 2) JTBC, "UN 퇴짜맞은 온실가스 감축목표(한국, 일본, 호주)" (2021) 중앙일보, "UN 사무총장 "OECD 국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하라" (2021).
- 3)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Korea), "2020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설문조사" (2020).
- 4) <https://www.apple.com/kr/newsroom/2018/04/apple-now-globally-powered-by-100-percent-renewable-energy/>
- 5) <https://korea.googleblog.com/2020/09/carbon-free-future.html>.
- 6) [https://blog.lgchem.com/2021/09/30\\_lgchem\\_sustainability\\_re100/](https://blog.lgchem.com/2021/09/30_lgchem_sustainability_re100/)
- 7) <https://www.basf.com/kr/ko/media/news-releases/kr/2020/07/P-20-26.html>.
- 8)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52892082>.
- 9) <https://equilibrium.gucci.com/ko/environmental-profit-and-loss-accounting/>
- 10) <https://www.nescafe.com/kr/grown-respectfully>.